

지역발전위원회 신임위원 광주·전남 2人 인터뷰

“문화전당 차질없게 정부 지원 건의”

이무용 전남대 교수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민간위원에 19일 위촉된 이무용(46)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문화전문가로서 선정된 만큼 새 정부의 국정지표 중 하나인 지역문화융성 정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2014년 동아시아문화 도시로 선정되고, 문화전당이 들어서는 광주의 지역문화융성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문화인프라를 갖춘 도시”라면서 “현재 문화전당 사업이 문화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지역되는 부분이 있는데, 차질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

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건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지역문화융성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주 등 어느 한 도시만의 지원으로는 불가능하며, 광주를 중심으로 전국이 문화밸트로 연결되고 묶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이 교수는 또 “현 정부의 공약중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를 세계적인 인권 도시로 만들고, 인권관광밸트를 만들겠다는 내용에 큰 관심이 있다”면서 “이제까지 5·18이 보상 등에 주력해 왔다면, 이제는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문화상품 등으로 거듭 어나야 할 단계이며, 이를 위한 인권관광밸트 조성을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이 모든 것은 아이디어 수준이며, 앞으로 지역 내 여론을 수합해 광주를 비롯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낙후된 호남 성장 특화 전략 만들것”

신순호 목포대 교수

“낙후된 호남이 잘 살 수 있고, 모든 지역이 균형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 민간위원에 새로 위촉된 목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순호(60·서남권 경제발전연구원장) 교수는 어느 한 지역 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균형 성장’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각 연구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지역에 비해 소외된 호남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국가 발전을 위해 호남이 어떤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자체가 치밀하게 지역의 특화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모적인 지역간 경쟁을 자양하고, 각 지역의 사정에 맞는 특화된 산업을 육성해

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면 사업이 중단되는 등 지역 사업들이 대부분 단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긴 안목을 갖고 지역이 잘 살 수 있는 사업과 정책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을 나온 신 교수는 낙후지역과 도서지역 개발정책분야 전문가이며,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지역개발과 토지정책 분야의 평가·자문 역할을 해왔다.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자문위원과 안전행

정부 자체평가위원회에서도 활동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역균형 발전 촉구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낙연 국회의원 등이 19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주최로 열린 ‘균형발전 촉구대회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지사,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정보공개 연 1억건으로 늘려 일자리 창출

개방형 행정개혁 ‘정부 3.0’ 비전 선포식

박근혜정부의 개방·맞춤형 행정개혁 프로젝트인 ‘정부 3.0’ 실현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갖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3.0은 정보공개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3.0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3.0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4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또 과장급 개방·공모직위는 기존 135개에서 520개로 늘리며 중앙·지방 교육근무제도를 도입, 신규임용자에 적용하는 한편 ‘계획교류목표제’를 통해 2015년까지 과장급 인사교류를 1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람들이 PC·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 곳곳에 남긴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일컫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미래전략 수립도 추진된다.

이날 비전선포식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국민대표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남북관계, 평화·협력 구조로 정착시켜야”

각계 인사 66명 ‘평화·통일 국민통합 선언’

민간교류·대북 인도적 지원 등 6원칙 제시

정치·종교·시민사회 등 각 분야에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인사 66명이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 구조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고 이를 위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이 선언문에서 남북관계 전반의 준수를 강조하면서 북한에도 핵무기 개발을 비롯한 핵 활동 중지 선언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국회가 본회의에

을 제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어떤 대북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며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을 확고한 의지로 추진해 나갈 때, 북한의 참여와 주변 국가들의 지지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위해 국회가 본회의에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첫 번째 기본원칙으로 “남북간 교류 협력을 통해 신뢰를 촉작하고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통일로 나아가는 것을 남북관계의 기본축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또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에 종전을 위한 협상을 개시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킬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준수를 강조하면서 북한에도 핵무기 개발을 비롯한 핵 활동 중지 선언을 요구했다.

이밖에 북한 주민 인권 개선, 정치

적 상황과 관계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재개, 자율적인 남북 민간 경제교류협력 보장 등도 촉구했다.

이번 선언에는 이병석·박병석 국회부의장, 정의화 안홍준 김성곤 이낙연 신상정 임태희 김부겸 등 전·현직 여야 의원과 고건 전 총리,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 전직 관료,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명진 목사, 김홍진 신부,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박남수 천도교 고령 등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D등급 ‘경고’

공공기관장 경영실적 평가

인 E등급을 받아 해임 전의대상에 포함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정부의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기관장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경고’ 조치됐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르면 각종 비리와 역량 부족으로 해임 견이나 경고를 받은 공공기관장이 18명 나왔다.

공공기관장 96명을 평가한 결과 김현태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박윤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이 최하위

아시아도시재생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아시아도시재생연구원(이사장 이병훈)은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부 각 부처가 설립을 인정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도시재생연구원은 학자, 예술인, 법조인, 경제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약 60여명으로 구성된 법인으로서 지난 4월 18일 창립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선암동 전원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 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련 연결공사 완료
-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 건물 2974 ㎡

감정가격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5억원

여수시 율촌면 가스총전소

대지 2610 ㎡ 건물 2974 ㎡

감정가격 10억1천만원

채권매각 6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지 3198 ㎡ 건물 1107 ㎡

감정가격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4억

부실채권매각 매수희망자 현장실사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상담 010-7570-7525

(별월 앞에서 70m 번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별월 쪽으로 20m)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중심상권 상가건물 18억, 21억, 30억 외 다수
- 월신동 일반상업지역 6층건물 매 14.7억
- 도임동 5층 상가 건물 8.5억
- 지신동 5층 사무실 건물 16.5억
- 동천동 공장·창고·임대(대1300㎡, 건400㎡) 보전 월3백만

대지/전답

- 나주시 평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4,150평) 매매가 협의
- 담양군 금성면 5,500㎡(1,670평) 개발허가, 기반시설 완비, 펜션, 모텔 적합
- 장성군 서산면 초임리 토지 1,050평 1.8억(펜션 조성 시설 적합)
- 장성군 삼계면 대지 외 4130㎡(1,250평) 1.7억
- 장흥군 진영면 진원주택(660㎡, 전13,165㎡ 포함) 3.5억
- 신동동 청고용지(생산농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 수원시 원룸부지 323㎡(98평)

기타

- 첨단 메인대로변 구분점포 150㎡ 매매 8.5억
-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보 10억 월 1,200만
- 전남 니주시 문정면 국도 1호변 주유소 7억
- 전남 소재 골프장 1,000㎡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광주 전남원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973-0045 010-5536-0382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우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상가 주택입찰에서 평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당)

상가 주택

- 동구 총장로5가 중심상가 7층상가사무실 대지579㎡ 건평2929㎡ 긴장기43억 최저가24억
- 광산구 유통동 2층주거 3층상가주택 대지221㎡ 건평 440㎡ 긴장기15억 최저가9억5천만
- 광산구 신기동 3층상가주택 대지429㎡ 건평561㎡ 긴장기6억9천만 최저가4억8천만

단독주택

- 서구 화정동